

## <참석자>

유승권 박사님: youse@missouri.edu

정제국 박사님: chungjk@missouri.edu

전상훈 박사님: chunsa@missouri.edu

## <설명회 요약>

### [지원절차 및 필수 준비서류]

- 학위: truman.missouri.edu → future students 클릭, online application을 통한 지원, 절차 확인 및 필요서류 제출
- 비학위: 유승권 박사님 및 정제국 박사님 이메일로 지원서류 송부 (지원서, 영문이력서, 연수계획서, 여권사본, 동반가족 여권사본, 재정보증서)
- 비학위 지원 후 영어 인터뷰 진행, 지원비는 해외 송금(온라인 지불 가능)
- 다른 대학에 비해 최종 합격증 받기까지 절차가 빠르나, 가급적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음
- 학위 과정의 경우 토플점수 80점이 기본 요건임. 다만 70점 조금 넘어도 학위과정으로 conditional admission을 주고있음. conditional이란 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어민 1:1 수업, 발음 교정 수업을 첫 학기에 수강하면 됨. 토플 점수가 조금 부족해도 적극적으로 admission 내줄 것이니 고민 말고 지원을 추천함

### [최근 미주리 코로나19 상황, 미국 입국 시 백신접종, 음성확인서 등 필수 여부]

- 미국은 백신 접종 이후 약 60~70%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음. 동부 지역은 80%까지 가기도 하고 남부의 경우 40% 정도. 미주리도 높지는 않음. 그러나 한국인들은 거의 99% 백신 접종률 기록. 작년 4월 이후에는 한국인은 단 1명도 확진자가 없었음. 미국 내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음. 의도적으로 사람 많은 곳에 가지않고 방역 철저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 지난 5월 17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고 근무, 아이들도 마스크 없이 수업을 받음. 최근 델타변이가 심각하다고 하여 마스크 착용 권고되어서 다시 마스크 쓰기 시작함.
- 미국 입국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 필요
- 백신 접종 상관없이 미주리는 자가격리 불필요함
- 백신 1,2차 접종(약 1달) 끝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백신 당일예약 가능, 예약 없이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음

### [주거, 차량구입, 자녀학교 등 아시안센터 제공 정착서비스]

- 미주리대 아시안센터의 장점이 정착 서비스가 잘 되어있다는 것임. 한국 스태프들이 한국인들의 니즈를 잘 알고 있으며 개인별로 최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
- 가장 중요한 집을 연결해드림. 9월부터 take over 매칭 시작이므로 빨리 지원하는 것이 좋음. 투베드(700~800불), 쓰리베드(땅콩주택 800불~1200불), 단독하우스(1300~1600불)
- 80%의 한국인들은 땅콩주택을 선택함. 땅콩주택은 복층이고, 앞뜰, 뒤뜰 있어서 자녀들에게 좋음. 최근에는 미국적 단독주택 선호도도 높아졌음
- 차량 구입도 연결해드림. 미리 구입할시 국제면허증 있으면 바로 차량 운전 가능. 최근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름. 한국인들에게 차량 구입하는게 조금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생각. 차량을 구

한 다음에 1~2년 후에 되팔기 때문에 되팔기 좋은 차를 구하는 것이 좋음. 차량 마일리지가 10만 마일 이상 등 너무 높을 경우 되팔기 어려움. 3만 마일 이하 정도의 차량 구입 추천. 최근 suv나 미니벤 선호도 높음. 약 2만 5천불 이상임. 3만불 정도면 새 차량도 구입 가능

- 미국은 겨울방학이 짧으며 12.20까지 수업하고 1.4 정도에 개학
- KDIS 가을 학기 끝나면 바로 출국하는 것을 권함. 늦게 입국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매칭이나 입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빠듯함. 또 12.20일 이후는 연휴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연말에는 센터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해야 함
- 공립학교는 입학시 영어테스트하고 아이들 반을 배정하며 부담 가질 필요없음. 테스트는 1.4 또는 1.5이며 학교는 그 다음주에 등교함. 시차 적응을 위해 출국은 빠를수록 좋음
- furnished된 집은 거의 없음. 기존에 있는 집을 take over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
- 부득이하게 빈 집으로 가시는 경우, 미리 직구해서 셋업도 가능

### [자녀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 콜롬비아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좋음.
- 북서, 서, 남쪽에 한국인 많고 이쪽에 산다면 크게 문제없음.
- 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에 25명 정도의 학생, 한국 학생은 1~2명 또는 없음
- 미국 학교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주며 아이들 적응 빠름
- 미주리 인구가 13만 정도인데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생활 인프라 정도를 비교해본다면 미주리는 월마트만 3개. 샘스클럽이나 대형 grocery 등은 10개 이상. 대학도 학생 수가 3만 1천명. 대학의 football stadium의 인원이 7만5천명 수용가능함. 병원이 약 5개. 생활 인프라는 한국의 대도시보다 높은 수준. 대전과 비교하면 될 듯함. 불편한 점은 한국 음식을 구하기 힘들다는 점. 한국보다 한가하고 여유로우며 복잡스러움이 없음

### [듀플렉스 기준 월 렌트비? 4인 가족 기준 월 고정생활비?]

- 고정 생활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인터넷, 차량보험, 식비 등)는 4인 기준 약 3천 불.
- 학교는 저소득 자녀에게만 무상 급식 제공. 한끼당 2불 정도

### [현지 치안]

- 미주리 치안 매우 안전. 지역별로 분위기가 다른 편

### [미주리 학위과정을 마친 후 비학위 과정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한지? 또한 타학교 학위과정을 마친 후 미주리 비학위과정으로 입학 가능한지?]

- 많은 분들이 1년이 아쉬워서 육아휴직이나 휴직을 해서 더 머무르는 사람 증가 추세
- 학위과정의 경우 F-1이나 J-1으로 입학하는데 F-1은 연장하려면 무/유급 직장을 구해야하며 구하지 못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risk 존재. 그러므로 J-1으로 신청해서 2년차에 academic practical training 과정 신청하는 옵션 선택 가능. 비학위 과정의 경우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연장하면 됨
- 본인은 귀국하려는데 아내가 추가 스테이를 희망하는 경우 비자 변경이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불가능함. 2 year residence requirement가 있기 때문. J-2에서 F-1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개별적으로 사전에 센터와 협의가 필요함)

### [학위과정생 중에 KDI 학생처럼 다른 공무원도 있는지?]

- 50명의 비학위 과정생이 있고 비한국인이 최근에 많이 감소해서 2~3명 정도. 타 시도, 공기업 출신 분들도,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음
- 학위과정에는 KDI 외에 2년 과정으로 중앙 부처나 국회 등에서 오는 분들 있음

### [1인 기숙사 입사 가능 여부]

- 학교 기숙사 사용 가능, 또는 학교 앞 원베드룸 아파트 사용도 가능

### <Q&A>

Q: 학사일정

A: 대학 및 센터 1.20에 개학함. 아이들은 1.4에 개학하므로 가급적 12월에 출국 추천. 3월 말에 1주일 봄방학임. 아이들도 방학이기 때문에 여행 많이 가심. 아이들은 5월 말까지 봄학기, 여러분은 (비학위, 학위 모두) 5월 중순에 학기 끝남.

여름학기도 무료로 제공함. 수업시간의 경우 초등학교는 8:20~3:30. 중학교는 7:20~2:30. 고등학교는 8:50~4:00. 학교 버스 운행되므로 픽업 불필요함. 여름학기는 4주. 방학이지만 여행 가지 않고 아이들 여름학기 보내기도 가능. 8.20에 가을학기 시작. 비학위과정은 11월 추수감사절 시작 전에 마무리하고 귀국 준비해드림. 학위과정은 12월 15일까지 수업 진행. 아이들은 12월 20일까지 수업.

Q: 아이들 교육

A: 8월 1일 기준 만 5세이면 유치원 감. 유치원부터 공립교육 시작됨. 1년 낮출 순 있음. 영어가 약하기 때문에 학년을 낮추는 것은 불필요함. 초등학교가 좋은 이유는 한 반에 미국 아이들과 함께 수업 받으므로 영어 배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 6학년(중학교)에서 5학년(초등학교)로 낮추는 것은 가능. 2010년 9월생은 내년 1월에 5학년 2학기로 들어감.

Q: 운전면허

A: 운전면허는 모두 따는 게 좋음. 미국 와서 미주리 운전면허 받으면 6개월 단위로 보험 갱신. 미주리 운전면허를 딸 경우, 두 번째 학기에는 discount 많이 됨. 교통법규 위반 시, 국제면허증을 경찰은 인정하지 않고 법정 출두하는 일 발생하므로 미국 입국 후 빨리 면허 따는 것을 추천

Q: 딸 2명이 모두 대학생인데 대학교 프로그램이 좋을지 아시안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좋을지?

A: 저희 대학의 부설어학원 프로그램이 있고 대학생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진행되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상태. 내년 봄학기(3월)부터 시작 가능할 것으로 보임. 대학에서 하는 intensive english program은 어학과정으로, 아침부터 오후 2~3시까지 academic english 배우며 발표, 인터뷰 등의 project-based 과정임.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데에 도움되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음. 미국학생 접촉도 많음. 조금더 실용임. 보다 다양한 경험을 원한다면 센터 프로그램을 추천

Q: 미주리에 한국인이 많은지?

A: 한국인이 많은 건 아니지만 800명 정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센터에 한국인이 많이 오심. 중국인들은 현재 코로나와 미중 관계로 인해 많지 않음. 적극적 유치 노력 중.

Q: out-of-state field trip 자세한 설명?

A: 책정된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고 가족 동반 시 추가비용 요청. 가족 동반에 제한 두지 않음

Q: 배편으로 부치는 짐은 부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A: 콜롬비아까지 한달 반. 코로나로 인해 조금 더 걸린다는 말도 있고 가격도 많이 오름. 배편으로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우체국에 알아봐야 함. 옷을 얼마나 가져가야하나 이런 것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물가가 서울보다 저렴하고 식자재나 옷도 저렴하니 미국에서 구입도 좋음. 입다가 버려도 괜찮을 정도의 옷 가져오면 됨. 미주리는 fashionable하게 입지 않음. 공식 행사에는 드레스 셔츠에 면바지 정도. 양복은 필요없고 세미 정장 정도 생각하면 됨

Q: 최근 혐오범죄?

A: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며 미주리는 그런 사건 없음. 크게 이 부분에 대해 걱정 안해도 됨. 한국 미디어가 그리는 미국의 모습이 왜곡된 부분도 없잖아 있음. 대도시 일부는 위험할 수 있지만 미주리는 안전. 콜롬비아는 특히 국제학생이 많아서 외국인에 대해 우호적.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미주리 좋은 점은 약간 시골임

Q: 콜롬비아 오는 방법

A: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 통해서 Dallas에서 콜롬비아로 도착함

Q: 실비보험

A: 학위/비학위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임. 학위과정은 대학에서 계약된 보험 들게 되어있고 비학위는 둘 중 하나 선택.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 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보험. 만약 질병이 있어 병원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야한다면 대학 제공 보험 가입이 낫다. 최소 보장한도에 준해서 가입해야함

Q: 가족 중에 일부는 대학 제공 보험 들고 일부는 여행자 보험 들 수 있는 것인지?

A: J-1 scholar가 학교 보험 가입해야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 가입이 가능. J-1이나 F-1의 경우에는 대체로 여행자 보험보다 약간 비쌀 수 있는데 J-2 spouse의 경우는 보험료가 비쌘. J-2에서 한 분이라도 학교 보험을 해야하면 자녀는 한명이든 두명이든 가격이 모두 같음. 팁은, 학교 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음. 아이들의 경우 다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여행자 보험을 1만불 보장 정도로 가입하면 부담이 크진 않을 것임. 치과는 보장되지 않으며 미국 오기 전에 치과 치료 받는 것이 좋을 듯. 커버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뭄 학교 보험은 scholar는 한달에 100불 정도, 부인은 250불 정도, 자녀는 150불 정도.

출산이나 질병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 드는 것을 추천.

학위과정의 경우, 본인만 의무적으로 학교보험 들어야함. J-1 scholar 비학위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 10만불 한도 보장되는 보험 가입해야 함. spouse나 자녀가 한국에 왔다갔다하고 미국 지내는 기간 많지 않더라도 일단 J-1, J-2 비자 받을 경우에는 한국 있는 동안에도 보험 보장 증명 보여야 함

J-1 scholar 학교보험 지원서식 보면 한달에 186불, 배우자가 182불, 자녀는 명수 상관없이 182불. 3~4인 가족이면 한 달에 대략 540불 정도로 한국보다 1.5배 정도 비싼 편임